**듣기 활동 유형**

듣기 활동이란 엄격히 말하면 듣는 동안의 활동이나 듣고 바로 응답하는 활동으로 제한된 다. 하지만 듣기 행위가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기여하도록 하고, 수업이 학습자의 듣기 전략 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정으로서의 듣기가 강조된다. 그래서 듣기 활동은 Underwood(1989 : 30〜78)의 듣기 전 활동(pre — listening)과 듣기 활동(while— listening), 그 리고 듣기 후 활동(post - listening)으로 나누어 진다. 이 글에서도 듣기 활동 유형을 정 리할 때 위의 3단계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한다.

듣기 전 활동(pre-listening)은 본 듣기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듣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 활동 유형에는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나 어휘, 문법 같은 언 어적 정보를 미리 학습하는 유형이 있다.

듣기 활동(while-listening)은 어떤 내용을 들은 직후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일 련의 듣기 이해(listening comprehension) 활동이 다. 듣기 활동에서 의 유형은 대부분 들은 내용 에 대한 질문 문항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듣기 후 활동(post-listening)은 듣기 이해 활동이 끝난 후에 들은 내용을 응용하여 새로운 내용을 산출하는 활동이나 듣기 활동을 통해 입력된 언어 정보를 연습 또는 보완하는 활동이 다. 들은 후 말하기, 읽기, 쓰기로 이어진다.

**1.1 듣기 전 활동(pre — listening) 유형**

듣기 전 활동은 들을 내용의 배경이나 맥락을 만들어 줌으로써 학습자가 들을 내용을 예측 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을 예측하면서 듣는 것과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듣 는 것은 이해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모국어 화자들 사이의 대화에서도 대부분 맥락이나 배 경이 있어서 대화자들이 내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다. 듣기 전 활동은 이 맥락을 충분히 제공하여 듣기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보다 더 쉽 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듣기 전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학습자들의 듣기 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외 국어 학습에서 듣기 능력은 학습자들이 향상시키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의 하나이다. 듣기는 입력된 음성 언어가 수용되어 이해되는 과정으로 모두 청자의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그 러므로 교사가 학습자의 듣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현장에서 듣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듣기 전 정보이다. 듣기 전 활동을 통해 정보를 가진 학습자들이 자신 의 듣기가 좋아지는 순간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또 효과적인 듣기 전 활동은 수업을 역동적으로 만든다. 듣기는 수용적 활동이므로 수동적 인 수업이 되기 쉽다. 하지만 듣기 전 활동에서 말하기 혹은 읽기와 연계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 학습자들이 각각 자신이 가진 스키마를 활성화 시 켜 수업에 참여할 때 듣기 수업은 수용만으로 끝나지 않는 생산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듣기 전 활동은 다루는 정보의 양상에 따라 배경 지식 활성화 활동과 지식 강화 활동으로 나 눌 수 있다. 전자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끌어 내는 활동이고, 후자는 교사에 의해 준비된 정보를 이용하는 활동이다.

**1.1.1. 배경 지식 활성화 활동**

배경 지식 활성화 활동은 학습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끌어내 어 이를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명확히하고 다 른 사람의 것을 수용하여 주제에 대한 지식을 넓히게 되면 학습자는 듣기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폭이 넓 어 진다＞

배경 지식 활성화 활동에는 교사 질문에 대답하기, 시각 자료(그림, 사진, 실물) 이용하기, 관련 어휘 예측하기 등이 있다.36}

**(1) 교사 질문에 대답하기**

대부분의 교실 활동은 보조 자료가 있든 없든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여기에서 아무런 보조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질문에 대답 하기라고 지칭했다. 예를 들어 ‘가방 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들을 거라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방을 사고 싶어요. 어디에 가요?’, ‘어떤 가방을 사고 싶어요?’와 같은 질문을 해서 들을 내 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질문을 할 때 교사는 들을 내용과 너무 관계가 먼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즉 ‘가 방 사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어느 시장을 좋아하세요?’라고 묻게 되면 ‘어떤 가방을 사고 싶 어요?’까지 접근하는데 다시 여러 번의 질문을 해야 하므로 듣기 전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없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답에서 들을 내용이 꼭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키워드 가 ‘싸고 예쁜 가방’이라고 해서 학생들로부터 반드시 그 답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학습 유형을 명명할 때 교수자의 입장에서 하느냐 학습자의 입장에서 하느냐에 따라 명칭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묻고 답하는 활동을 교수자의 입장에서 명명할 때는 ‘교사가 질문하기’라고 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 명명할 때는 ‘질문에 대딥•하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학습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명명하기로 한다. 단지 들을 내용의 맥락만 형성해 준다면 듣기 전 활동의 역할은 충분하다.들을 내용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경험이나 습관, 학생의 생각이나 반응 등을 질문할 수 있다.

► 대화를 듣고 누가 무엇에 대해 고민하는지 체크하십시오.

|  |  |  |
| --- | --- | --- |
|  | 1 누가 | 무엇에 대해 |
| 1 | □ 초등학생 | □ 성적 |
| 1 | □ 중•고등학생 | □ 외모 |
| 2 | □ 40대 직장인 | □ 취직 |
| Q 40대 구직자 | □ 미래 |
| 3 | □ 가게 직원 | □ 불경기 |
| □ 가게 주인 | □ 사업 |
| 4 | 1 1 고등학교 운동선수 | □ 진학 문제 |
| □ 대학교 운동선수 | □ 대회우승 |
|  |  | - 자료 :「한달완성 한국어 중급 듣기」. p. 32. |

**(2) 시각 자료 이용하기**

교사가 학습자에게 질문을 할 때 보조 자료로 그림이나, 사진, 도표, 혹은 실물 등의 시각 자 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시각 자료는 언어 자료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변화와 리듬을 주고 학습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더 본질적으로는 들을 내용에 대해 정확한 방향으 로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두뇌 활동을 적극적으 로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한달완성 한국어 중급 I 듣기」는 모든 듣기 전 활동을 시각 자료를 이용한 교사의 질문 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할 때는 그것이 학습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좋다. 너무 넓은 범위 의 시각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되면 듣기 전 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시각 자료 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너무 추상적인 그림은 내용 예측이 주관적일 수 있고, 지나치게 복잡한 그림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

**출처**

강현화 외. (2009). 한국어 이해교육론. 서울 :: 형설출판사.